

## 2023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제언대회 (A)팀

<b>제언하는 내용의 주제</b>	<p>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자기계발 이수제 도입 (졸업예정자 필수-자기계발 교육 참여)</p>
<b>제언이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수능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방안 필요</li> <li>- 수능 이후 각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 중이지만 청소년들의 의욕 저하로 운영에 한계가 있고, 효과도 미비한 현실.</li> <li>- 청소년이 사회진입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의 토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성인으로 자립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li> </ul>
<b>현황 및 문제점 분석</b>	<p>고3 대학 입시가 끝나면 졸업전까지 학생들에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생기고, 시간적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사실상 고등학교 수업과정은 끝이라는 생각을 한다. 등교 후 대부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조퇴, 병결 등을 학교에 신청해 아예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학년 교과진도 완료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완료된 상태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은 저하되어 있다. 대학입학이나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의욕을 나타내지 않으며, 성적부진 학생들의 경우 자포자기 심정으로 역시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예체능계 진학 희망자에 대한 학교에서의 실기지도에도 한계가 있어, 예체능계 진학 희망 학생은 일찍이 하교하게 할 수 밖에 없다. 합격생이나 취업생의 경우에는 해방감으로 인해, 불합격생이나 미취업생들은 좌절감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말의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와 졸업 예정자를 유혹하는 상업 이벤트로 인해 학생들의 일탈행위 유발 가능성도 높다. 수능이 끝난 이후의 학교생활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난감한 시간일 것이다. 이 같은 수능 후 시간 때우기식 등교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은 수능 후 다양한 전환기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 중이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이후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수능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p>
<b>제언하는 정책의 내용</b>	<p>한 개인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에게 자립은 매우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청소년은 부모와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성인기 이행을 위한 자립기술을 습득하고, 자립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및 학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향후 성인기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Swartz, 2008) 연구자들은 자립이 청소년에게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궁극적 성과라고(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보는데 이견이 없다.</p>

수능이후 사회진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의 한 과정으로 자립 교육을 포함한 자기계발 지원이 포함된 전환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고3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도로교통공단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교육부의 온라인 프로그램 크레존, 에듀넷-티클리어(근로교육, 금융교육, 경제교육 등) 고용노동부의 고3학생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직업선호도 검사 실시, 직무 체험 프로그램)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재무관리 등) 여성가족부의 맞춤형상담, 심리검사지원 등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문화체험 및 문화탐방 등이 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개인이 신청하거나 온라인 프로그램이거나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한 부분이 분명 있다.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자체별 기관별로 각각 운영중인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교와 연계하고, 교육청에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체계적인 전환기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바램 때문이다.

■ 제안하는 정책: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자기계발 이수제

■ 지원내용

- 졸업예정자를 위한 토털 자기계발 교육과정 시행
-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 (졸업필수 이수과정으로 시행)
- 취미생활 및 자격증 프로그램 지원
- (6회기 이상의 단기특강-청소년의 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조사 필수)  
예: 자취생을 위한 기초 요리반, 컴퓨터자격증, 원데이클래스, 스포츠 등)  
폭넓은 체험중심으로 운영
- 사회생활 초보를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상생활기술, 경제상식 이해 및 경제관리법, 법률상식, 근로상식, 신체적 건강관리,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자원 영역, 올바른 이성교제를위한 기본예절 및 성교육 등)
- 각 기관 및 지자체 연계 강화로 통합된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

■ 해외우수사례:

행복지수 1위라는 덴마크 교육의 핵심은 1년짜리 기숙형 학교인 '에프터스콜레(Efterskole)'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5세 나이에 1년간 '갭이어(Gap Year)'성격의 전환학년제를 도입 최소한 1년의 이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교육제도이다.

현재 덴마크 인구 580만인 나라에 250여 개의 에프터스콜레가 운영 중이고 14~18세 청소년 가운데 25~30퍼센트가 이곳을 거쳐갔다고 한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하기 전 4명 중 1명이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전환기를 보내고 때문에 에프터스콜레는 '인생설계학교'라 불린다.

-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볼 때 꼭 1년간의 전환학년제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전환기 교육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며, 사회적응 준비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준비된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p><b>예산확보 및 예산소요예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1인 1기 갖추기 연수를 통한 운영인력 확보(강인환 서울 배명고등학교 교사)</li> <li>■ 재능있는 재학생 및 마을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연계형 단기특강 진행 (예산 절감 및 유대감 강화)</li> <li>■ 교육청 예산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생 전체 수 36,808명 ( 프로그램 개발비, 교사연수비, 프로그램 인건비, 단기특강 및 자격증 교육 운영비))</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수능 이후 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상화, 학교 수업 단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음.</li> <li>■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역량을 함양,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함..</li> </ul>
<p><b>참고자료 및 출처</b></p>	<p>(교육인적자원부 2002) 대입수능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두드림 특성화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 청소년 자립준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조규필 2011) 취약청소년 자립준비요인 탐색 및 시사점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연주, 김세진, 김경은, 최수정 2022 )청소년 자립준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전환기 교육 사례와 시사점(충북교육정책연구소 2019)</p>